

지방공무원 심리·정서 안정 돕는다

도교육청, 상담 지원제도 운영 계획 마련... 개인·집단상담으로 나눠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개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2023 지방공무원 상담 지원제도 운영 계획을 마련, 안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상담 지원제도는 전문상담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서적 고통을 해소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상담내용은 과다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상사·후배 등 구성원 간의 조직 내 관계 갈등, 부부 관계나 자녀 양육문제 등 가족문제,

대인관계·개인성격 및 정서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또 사전예약 지원으로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유형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개인상담의 경우 개인이 직접 상담 및 진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한 뒤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서 도교육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준다. 상담지원 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집단상담은 연간 4회까지 지원한다.

상담기관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기관 등 40개소, 진료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등 33개소, 알코올 중독 예방 등 전문의부기관 4개소 등이다.

도교육청 박성현 총무과장은 "공무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은 주저말고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운용 결과 집단상담에는 3팀이 참여해 7회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개인상담은 162명(1167회)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훈 기자



지난 2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기인홀에서 제18대 김동원 총장 이임식이 열린 가운데, 김 총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년간의 노력, 지역발전 에너지 되도록”

김동원 전북대 총장 이임식... 구성원들에 감사 뜻 전해 지역사회와 동행 정책 펴와... 지·학 협력 시스템 마련

"대학 조직은 대규모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닮아 있다. 구성원을 배려하고 창의적 역량을 끌어낼 때 대형 오케스트라의 명지휘자가 되겠다."

4년 전, 전북대학교는 오케스트라의 명지휘자를 지임했던 김동원 제18대 총장이 지난 27일 오후 3시 진수당 기인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쳤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지난 4년의 추억을 담은 사진과 추진업적을 담은 동영상 상영됐고, 이재백 교학부 총장이 김동원 총장에게 송공패를 증정했다.

또한 정영택 총동창회장은 감사패를, 정용채 기획처장은 4년의 발자취가 담긴 재임록을 전했으며, 교직원과 학생 대표 등이 꽃다발을 건네며 그간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동원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발전대학, 따뜻한 동행 캠퍼스, 레이저로 삼고 대학 운영 전반의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내실을 다지고,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따뜻하게 동행하는 정책을 펴왔다.

큰사람을 키우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학 협력' 시스템을 만

들어 나가는 데 주력했다.

또한 국가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거점국립대학들과 연계한 학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유례 없는 대학 위기를 '공유와 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

특히 대학이 지역발전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캠퍼스 혁신과 지역 사회 유익'과 '신화학 합플러'를 신축 추진, 그리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 유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들 사업은 대학 캠퍼스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성장 모델을 만든 혁신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원 총장은 "지난 4년, 전북대를 명문대학으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위해 신명나게 일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동안의 노력들이 대학과 지역발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올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운영 선정

올 연말까지 사업 수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2023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선정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수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주대학교는 이 사업을 통해 전북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혁신 아이디어 및 의견 등 지역문제에 대해 제안하고, 수렴된 제안과제를 대안으로 의제를 선정하는 후 의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행계획을 마련해 민간·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의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주대 지역혁신센터 한동승 센터장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해 이어 연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연속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의 내실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해 발굴하고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해결해나가는 민·관·공 합업체제로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해결 모델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해 8월에 출범해, 15개의 의제를 추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대, 내일 '2022 재정지원사업 성과 포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오는 31일 교내 황학당에서 2022년 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한다.

전주교대 이번 포럼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인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 행사로 열리는 이번 성과포럼은 총 2부로 운영되며, 1부에는 'JNU 교육모델 개발 정책연구' 발표, 2부에는 '재정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의 우수성과 발표를 통해 대학 구성원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 목표를 재확인하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박병춘 총장은 "우리 대학교가 그동안 진행해 온 혁신적인 정책연구와 인재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업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많아져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 연차성과 평가 '우수'

3년 연속 선정받아... 사업기간 1년 연장 혜택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대학일자리를 본부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진로 및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 연계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매년 연차성과평가를 통해 우수·보통·미흡 등 3등급으로 나눠 우수기관으로 3회 이상 선정되면 사업기간 1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진로 취업 인프라 서비스 강화 △통합상담 서비스 체계화 △진로 교과목 운영 네



전주비전대, 산학·연구활동 우수연구자 시상식

백일현 교수 등 총 4명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지난 28일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학술 연구활동에 공로가 큰 우수연구자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했다.

올해로 6회째 진행된 '우수연구자 선정·지원사업'은 연구과제, 지식재산, 학술활동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연구 역량강화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4명의 연구자를 우수연구자로 선정했다.

지식재산 부문에는 '스마트 안전벨트 시스템'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 확보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기반 구축 관련 업적으로 자동차부 백일현 교수가 선정됐다. 연구과제 부문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핵심 학문 분야 9개 연구팀을 지원하는 건지(GEONJI) 연구지원사업에 추진해 온 전북대학교가 이 사업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성과 교류회를 지난 26일 오후 개최했다.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핵심 학문 분야 9개 연구팀을 지원하는 '건지(GEONJI)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전북대학교가 이 사업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성과 교류회를 지난 26일 오후 개최했다.

전북대는 지난 2020년 4단계 BK21 사업에 21개 교육연구단(팀)이 선정되어 핵심 학문 분야 연구역량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매진해 오고 있다.

'건지 연구지원사업'은 4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하는 21개 교육연구단(팀) 중 9개 팀(이공계열 8개 팀, 인문사회계열 1개 팀)을 선정,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와 대학원 연구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성과 교류회에서는 반도체·화학공학 교육연구단의 POS 기반 소재를 활용한 산성 용액 내 회소금속 회수 과제(임재형 임소우) 외 8건에 대한 연구 방향과 성과공유, 건지연구지원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1년 이 사업을 통해 우수 저널에 논문 게재 성과를 올린 산재 연구자들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후배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전자정보공학부의 JIANT-IN 인

력양성사업단 김준범 박사가 확장 가능한 다중 엔지니어링 최적화를 위한 그래프 심층 신경망 연구 성과를 통해 스웨덴 KTH 왕립공과대학에 박사후연구원으로 진학하게 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의 성과도 올렸다.

이날 발표한 9개 팀은 내년 1월까지 이공계열은 국제전문학술지(SCIE), 인문사회계열은 국제전문학술지(Elsevier) 이상 논문을 게재해야 해 이후 학술적 성과 또한 기대된다.

김법석 대학원 부원장은 "건지(GEONJI)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참여 연구자들이 그간의 연구 성과 창출과 정이나 우수 연구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지원을 통해 전북대가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 환경에 선도적 대응이 가능한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지(GEONJI)연구지원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우수연구자가 되기까지 전 생애주기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기획과 수행, 연구 확산 역할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김재훈 기자

2023학년도 유·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유치원 21·초등 42·특수 유·초 9명 등 총 73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신규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3명을 발표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유치원 21명(일반 20명, 장애 1명), 초등 42명(일반 41명, 장애 1명), 특수유치원 1명, 특수초등 9명 등 총 73명이 최종 합격했다.

개인별 성적은 27일부터 오는 2월 2

일까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eduarcruit.jbe.gov.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을 실시했고, 제2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초등은 영어 수업실연과 영어면접 별도)으로 치러졌다. 배점은 제1차·제2차 시험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초등교사의 경우 제1차시험 합격자

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3급 이상인 자 중에서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한 성적 반영점수, 지역가점 및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제1차,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했다.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는 집합연수로 진행되며, 분야별 연수기간 및 수강강령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입니다.